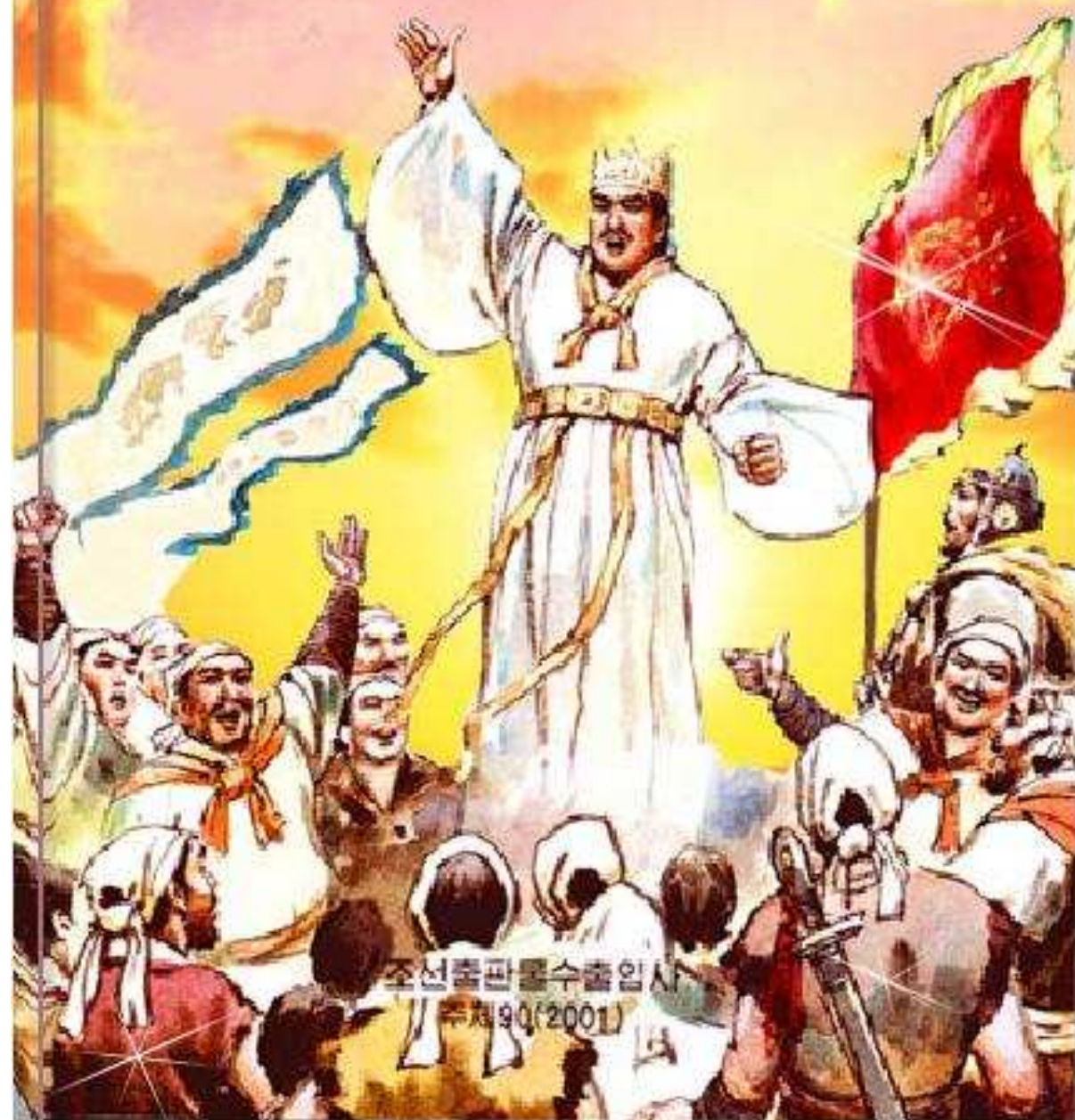


그림으로 본 조선력사(고조선편2) 2권

이 땅에 첫 아침이



조선출판물수출입사
주최 90(2001)



환인을 비롯하여 박달종족의 두령들과 백성들이 모두 떨쳐나와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환웅은 아버지에게 안해를 인사시켰습니다.

환인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다음날 환인은 종족두령들을 모두 모여놓고 아들에게 추장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환웅은 박달종족과 곰종족의 추장이 되었습니다.



환웅은 1년에 절반은 곰종족이 있는 곳에 가서 일들을 처리하고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환웅은 범종족이 추장을 새로 내세우고 점점 더 위협적으로
나온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평화가 깃들수 없었습니다.



환웅은 아버지와 종족두령들과 의논하고 범종족을 칠 방도를 세운 다음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환웅은 군사를 거느리고 범종족을 치러 떠났습니다.



환웅의 군사가 온다는것을 알자 범종족추장은 군사를 일으켜
맞섰습니다.



환웅은 군사를 강변에 정렬시키고 범종족추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우리모두가 한피줄을 나눈 겨레인데 서로 피를 흘릴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 화목하게 살아가자고 절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범종족의 두령들은 두편으로 나뉘었습니다. 추장을 비롯하여 한편은 끝까지 싸우자는것이고 다른편은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화목하게 살자는것이었습니다.



범종족추장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붙잡아다가 목을 친 다음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하였습니다.



환웅은 공격명령을 내렸습니다. 박달종족과 곰종족군사들은 달려드는 범종족군사들과 맞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환웅은 군사의 앞장에 서서 적들의 중심부로 뚫고 들어갔습니다.
추장은 견디다 못하여 수레를 돌려 도망쳤습니다.



남은 군사들은 모두 행복하였습니다.



범종족추장도 끝내 붙들려와서 한웅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환웅은 그를 관대하게 용서하고 손을 잡아 일으켜주었습니다.
추장도 그의 도량이 큰 마음에 진심으로 행복하였습니다.



범종족도 환웅이 다스리게 되자 박달종족의 세력은 비할바없이
커졌습니다.



환인은 나이가 들어 숨을 거두면서 환웅에게 《원쑤는 검으로,
백성들은 덕으로 다스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환웅에게는 아들 단군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인 을아는 단군을 한시도 품에서 떼놓지 않았습니다. 환웅도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을 몹시 사랑하였습니다.



을아는 어린 단군에게 늙은이들을 존경하는 법부터 배워주었습니다. 그는 어린 아들의 손목을 끌고다니면서 종족의 늙은이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환웅은 단군이 5 살이 되자 말타는 법, 창쓰는 법 등 무예를 가르치고 글도 가르쳤습니다.



단군은 10 살이 되자 아버지앞에 나서서 산속에 들어가 무예를 닦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그가 애처로와 허락하지 않았지만 환웅은 그의 소원대로 하게 하였습니다.



단군은 눈물을 뿌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뒤에 두고 말을 타고
떠나갔습니다.



그는 홍산, 묘향산, 구월산을 말을 타고 넘나들며 활쏘기, 창쓰기를 비롯하여 무예를 익혀나갔습니다.



단군은 멀리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이 지방, 저 지방을 다니면서 많은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종족두령들이 제멋대로 노예들을 죽이고 자기가 사는 지방에서 제노라고 하는것도 보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아버지 환웅이 파견한 두령들의 말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이웃종족과 싸움도 하고 약탈도 하였습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추장인 환웅의 명령이 떨어져도 듣지 않았습니
다. 단군은 이 모든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 무예를 닦던 단군은 림림한 젊은이가 되어
고향 부루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주암산과 모란봉을 감도는 부루나강의 아름다운 경치에 매
혹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태어난 외가에도 들렀습니다. 외할머니와 이모들은 릉릉한 청년이 되어 돌아온 그를 보자 마당까지 뛰어 나와 기쁘게 맞아들였습니다.



단군은 외할머니로부터 외할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전사하던 이야기와 아버지가 용감하게 싸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단군은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범종족들이 환웅추장의
눈에서 벗어나 다시 자기네 무리를 짓고 이곳을 습격하려고 한다
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단군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추장의 힘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러 종족들을 다스리려면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군은 범종족들이 음모를 꾸민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몸으로 그들을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위험하다고 그를 말렸습니다.



단군은 끝내 범종족을 만나 그들에게 서로 싸워서 안된다고 호소했으나 그들은 무작정 단군을 묶어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단군은 아버지에게 알리지도 않고 혼자 제멋대로 온것이 후회되었으나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단군을 가둔 범종족의 두령들과 귀족들이 모두 모여 그를 어떻게
처리할것인가고 의논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를 무작정 죽이고 박달
종족을 치자고 하였습니다.



다른 쪽은 그를 놓아주고 환웅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마다 제 주장이 옳다고 떠드는 통에 결정을 짓지 못한채 밤이
깊었습니다.